

KT, 인력개편 가닥... ‘AICT 컴퍼니’ 사업구조 전환 추진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출·희망퇴직 신청자 4500명

자회사 KT OSP·KT P&M 설립
내년 1월1일자로 법인설립 예정

2028년까지 ROE 최대 10% 목표
누적 1조 자사주 매입·소각 추진

KT가 경영 쇄신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인 인력개편을 가닥 잡으면서 혁신에 본격 속도를 낸다. 그간 KT는 구조조정 관련 급심한 반발에 부딪히며 김영섭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인력 개편 의지를 이어가면서 결국 본격적인 쇄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KT에 따르면 내년 출범하는 신설 자회사 전출 신청 인력이 17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전출 신청 마감을 지난 4일로 일주일 연장했지만, 전출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날까지 KT 넷코어(전 KT OSP)와 KT P&M에 각각 1483명, 240명이 전출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특별희망퇴직 신청자가 2800여명 수준으로 예상보다 높아 목표했던 인력 재배치 규모를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위원회는 전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뉴스시스

지원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을 결정하고 관련 인력을 전출하는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KT는 사회를 열어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철야 농성을 벌이며 구조조정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고위 임원이 전출을 압박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김영섭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사내 방송을 통해 기술 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의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CEO 특별 대담을 진행하며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부사장)이 전출 대상 직원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이 있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구성원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지난 1일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사자인 안 부사장도 이날 특별 대담에서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결국 인적쇄신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이는 탈통신의 기조 아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KT는 인력 개편을 시작으로 신사업 발굴에 가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먼저 KT는 지난 5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연결기준 6% 수준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8년까지 최대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기간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ICT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소각

등 세부 달성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AICT(AI+ICT) 컴퍼니’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향후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 IT 등 각 사업의 구조를 혁신해 B2B AX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별도 기준 서비스 매출의 6%를 차지하는 AI와 IT 분야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3배 수준인 19%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저궤도 위성 사업도 본격 추진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앞서 KT는 이동통신 영역이 지상에서 위성까지 확장되는 6G 시대를 대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에 나섰다. 6G 시대에는 지상 통신을 넘어 위성 영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저궤도 위성 산업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카이퍼 시스템즈(Kuiper Systems)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KT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대표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metroseoul.co.kr

LG전자, 서울역에 ‘이음5G’ 솔루션... 고객 안전 향상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음5G 기반 철도 디지털경영혁신
시흥기지·구로변전소도 사업 전개

LG전자가 서울역에 5G 특화망(이하 이음5G) 솔루션을 시범 구축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8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이음5G 기반 철도 분야 디지털경영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조주완 대표이사(CEO), 코레일 한문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철도 시설물 내 이음5G 네트워크 시범 구축 ▲철도 분야 서비스 및 운영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검증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LG전자 조주완 CEO(왼쪽)와 코레일 한문희 사장.

/LG전자

이음5G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 등 특정 공간에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고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양사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흥차량기지, 구로변전소 등 3곳의 철도 시설물

에 이음5G 솔루션 실증 사업을 전개한다. 국내 철도 시설물에 이음5G 솔루션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역의 경우 승강장의 CCTV와 경보 시스템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해 이용 고객의 안전을 높인다. 예를 들어 선로에서 낙상이 감지되었을 때 해당 경보를 움직이는 열차로 빠르게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시흥차량기지에서는 열차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적절한 시점에 정비를 진행하는 ‘상대기반유지보수(CBM)’에 이음5G 솔루션을 적용한다. 고장이 발생한 후 또는 정해진 주기를 기반으로 정비하는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이 뛰어나 선호되는 방식이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서울역과 시흥차량기지 등 실제 철도시설물과 동일

한 3차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통합 관제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LED 사이니지, 안내 및 물류 로봇, 웨어러블 장비 등 이음5G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 실증 사업을 통해 철도 분야에 특화된 이음5G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이음5G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억달러(약 2조 7500억원)에서 2028년 약 118억달러(약 16조2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42%에 달한다.

조주완 CEO는 “LG전자의 B2B 사업은 단품 공급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머무는 공간 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더하는 고부가 사업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네이버 ‘날고’ 카카오 ‘주춤’... 3분기 실적 희비

네이버, 매출 11%, 영업이익 38% ↑
카카오, 매출 4% ↓, 영업이익 5% ↑

올 3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교차했다.

3분기 실적발표 결과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의 강력한 특인(Lock-In) 전략을 통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카카오는 비교적 선방했으나 중심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벗어난 서비스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우리나라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은 단일 플랫폼 내에서의 이용자 록인 효과 여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는 연결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조7156억원, 영업이익은 38.2% 증가한 5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같은 기간 4% 감소한 1조9214억원, 영업이익은 5% 증가한 1305억원을 기록했다.

올 3분기 네이버는 서비스 전반이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핵심 서비스인

검색 서비스는 플러스광고의 성장과 외부매체 상품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했다. 더불어 커머스 또한 광고와 중개 및 판매, 멤버십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12.0% 성장했다. 핀테크와 콘텐츠, 클라우드 또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6.4%, 17.0% 성장했다.

네이버의 고른 성장은 인건비·마케팅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한 것과 이른바 ‘네이버 생태계’로 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이용자 록인 효과로

설명된다.

카카오는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비교적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액 1조9214억원, 영업이익 130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고, 영업이익은 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6.8%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이 전반적인 매출을 견인했다. 플랫폼 부문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435억원이나, 특비즈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전년 대비 21% 늘어나며 큰 성장을 이뤘다. /김서현 기자 seoh@

제주항공 ‘미슐랭’ 홍콩여행 추천 인천~홍콩 주 14회 운항

제주항공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들을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천국 홍콩 여행을 추천한다.

홍콩내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은 총 78곳으로 34곳인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미슐랭 3스타’ 식당은 7곳으로 일본과 함께 최고의 미식 여행지로 꼽힌다.

아시아 최고의 미식 여행지답게 중식뿐만 아니라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장르의 미슐랭 3스타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한식당의 지점도 홍콩에 위치해있어 한식 요리까지 즐길 수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에 하루에 주/야간 각 1편씩 총 주 14회, 제주~홍콩 노선에도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해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이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중인 마카오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인천~홍콩~마카오~인천’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행 구성이 가능한 1석2조의 여행지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최근 미식·스포츠 여행 등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즐기기 위한 여행인 인터레스트립을 즐기기 위해 하루나 이틀의 연차를 활용해 짧게 자주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식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여행객이라면 한국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미슐랭 식당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홍콩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